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시즌 홈 첫 승 노린다



김서진

## 내일 오후 5시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인천시청과 맞대결 패스미스 등 잦은 실책 해결과제…팀 득점력 끌어올려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올 시즌 H리그 홈경기 첫 승을 노린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30일 오후 5시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5차전에서 인천시청을 상대한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홈 개막전에서 28-33으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중요한 승부처마다 실책이 나온 게 패배의 원인이었다. 상대는 공격 기회를 잘 살려 득점으로 연결한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리듬이 자주 끊기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선수 교체 과정에서 소통 오류로 8명이 코트를 밟아 2분간 퇴장을 당하는 등 아쉬운 실수도 있었다. 김지현은 이날 9골(공격성공률 69.2%)·3도움, 이호진은 7골(공격성공률 87.75%)·2도움으로 득점을 책임졌다. 강주빈도 4골(공격성공률 57.1%)·2도움을 올렸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1승 3패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2점으로 리그 6위를 유지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실책이다. 대구시청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38개)을 기록하고 있다. 최소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SK슈가글라이더즈(19개)와 2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 패스미스와 캐치미스가 반복되면서 원활한 공수 전환이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100득점 113실점으로 득실차 -13을 기록 중이다.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점수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 수비를 잘하더라도 아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주포 김지현이 리그 득점 3위(25골)에 오르며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공격포인트(36p)에서도 5위에 오르며 활약 중이다. 단점으로 꼽혔던 공격성공률(54.35%) 역시 많이 올라온 상태다.

날개 쪽에서는 김서진이 왕득점 1위(6골)에 오르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다.

골키퍼 이민지는 세이브 5위(44회)를 기록 중이다. 방어율은 30.56%로 주전 골키퍼들만 따졌을 때 사실상 4위에 위치했다. 문제는 기복이다. 올 시즌 대구시청전에서는 방어율 50%를 기록하며 철벽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전에서는 방어율 21.62%를 작성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광주도시공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민지가 안정감을 찾고, 팀이 득점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할 팀은 인천시청이다.

인천시청은 올 시즌 개막전부터 4경기를 연달아 패하면서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시즌에도 8위에 머물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올 시즌에 앞서서는 이호진이 광주로 이적했고, 이가은과 김설희가 은퇴하면

서 베테랑이 모두 빠져나갔다. 현재 팀 내 대부분이 1~3년 차 신예 선수들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조직력을 갖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

그럼에도 올 시즌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인천시청에 합류한 강사본이 득점 4위(23골), 공격성공률 65.71%로 루키 답지 않은 파괴력을 뽐내고 있다. 7m 득점에서는 2위(11골)에 올 정도로 정교한 슈팅을 자랑한다. 또 원포지션에서는 리그 3년 차를 맞은 차서연이 왕득점 5위(4골)에 오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지난 시즌 출전하지 못했던 임서영도 복귀하며 스틸 4위(4개)에 올랐다. 2023-2024시즌 신인왕에 올랐던 선수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양 팀 상대 전적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열세다. 지난 시즌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인천시청전 이후 서울시청과 맞붙으며 올 시즌 홈 경기를 마무리짓는다. 두 팀 모두 비교적 전력이 약한 만큼,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하는 상태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감독은 “지난 부산시설공단전에서 연지현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해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피벗 포지션에서는 교체 선수 없이 김금순이 풀타임을 뛰어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홈 경기가 인천과 서울 등 중하위 팀과의 경기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따내려고 한다”며 “올 시즌 안방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금정

# 광주FC, 1차 동계훈련 마무리…“계획대로 수행”

태국 후아힌서 체력 강화·전술 완성 향상 집중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남해서 2차 전술 예정

프로축구 광주FC가 새 시즌을 앞두고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약 20일간 태국 후아힌에서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따뜻한 기후와 안정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계

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시즌 준비의 기틀을 다졌다.

이번 전지훈련은 선수단의 기초 체력 강화와 전술 완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반복적인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시즌을 대비한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이번 전회는 이정규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전지훈련으로, 새로운 훈련 시스템과 팀 운영 방향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계기가 됐다.

선수단은 감독의 전술 철학과 요구 사항에 빠르게 적응하며 높은 집중도와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정규 감독은 “선수들이 짧은 기간 동안 훈련에 잘 적응했고,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과정에 집중하자는 원칙 아래 선수단 모두가 좋은 태도로 임해 준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총평했다.

한편 광주는 후아힌에서의 1차 전지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1일 경상남도 남해로 이동해 15일까지 2차 동계 전지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2차 전회에서는 연습경기 등을 통해 실전 감각과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2026시즌 개막을 향한 준비에 박자를 가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프로축구 광주FC가 2026시즌을 대비한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 올림픽 골든데이 21일…한국 ‘금 3개·톱10’ 향해 출격

10일 쇼트트랙서 첫 금메달 도전

21일 정재원·최민정 등 금빛 기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개회식 다음 날인 8일(한국 시간)부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3개 이상, 톱10 진입으로 삼았다.

첫 메달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백선원가드)가 도

전한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이상호는 2월 8일 오후 5시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첫 금메달은 2월 10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호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출격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혼성 2000m 계주를 출전한다. 혼성 2000m 계주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당시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혼성 2000m 계주는 단거리 종목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힘이 좋은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현

(강원도청)이 대표팀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2월 12일엔 프라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윤(서울시스키협회)이 메달 도전에 나서고, 2월 13일 새벽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은(세화여고)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한 최가은은 재미교포 클로이 김과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오전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이 열린다. 임종연(고양시청)과 황대현, 신동민(고려대)이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2월 14일엔 차준환(서울시청)이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열린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한국 남자 선수 최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본다. 같은 날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선 이

채운(경희대)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월 15일엔 임종연, 황대현, 신동민이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남자 1500m는 한국 쇼트트랙의 핵심 종목이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회 연속 금메달을 바라본다.

2월 21일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골든데이’로 꼽힌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인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이 이날 열린다.

최민정과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해 한국 쇼트트랙의 지력을 확인할 전망이다.

남자 대표팀도 같은 날 5000m 계주에서 우승을 노린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도 이날 펼쳐진다.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강원도청)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올해 LPGA 투어 주목할 선수 선정

김세영·김아람·최혜진 등 15명

김세영과 김아람,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6시즌 주목할 선수 15명에 선정됐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28일(한국 시간) 올해 LPGA 투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목할 선수 15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김아람, 최혜진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김세영에 대해 “지난해 우승 한 번을 포함해 ‘톱10’을 10번 기록했다”며 “파 5홀 성적 이 4.55타로 투어 상위권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투어 통산 13승을 거둔 김세영은 지난해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2020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2025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 우승자 김아람에 대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후 우승은 없었지만 ‘톱10’ 9번을 기록했고,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 공동 4위로 선정했다”며 2026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최혜진을 두고는 “지난해 ‘톱10’을 9차례 했는데 이는 우승 없는 선수로는 최다였다”며 “올해 투어 첫 승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국 선수 3명 외에 지노 티피쿰(태국), 넬리 코르다(미국), 로티 위드(잉글랜드), 야나 월슨(미국), 이와이 지지로 등륙명을 바꾼 이와이 지사토, 이와이 아키에, 야마시타 미유, 사이고 마오(이상 일본), 이민지(호주), 린디 덩컨(미국), 찰리 헐(잉글랜드), 가비 로페스(멕시코)를 2026시즌 주목할 선수 15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위드는 로즈 장(미국)과 함께 미국 스크린골프 리그인 WTGL 출전을 28일 확정했다.

WTGL은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주도적으로 만든 스크린골프 리그인 TGL의 여자부 경기다.

2026-2027시즌 출범할 예정이며 위드와 장에 앞서 티피쿰과 헐, 리디아 고(뉴질랜드), 브룩 헨더슨(캐나다), 렉시 토포스(미국)이 WTGL ‘원년 멤버’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김세영